

보도시점 2024. 11. 19.(화) 06:00 배포 2024. 11. 19.(화) 06:00

윤석열 대통령,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국제개발협회(IDA) 기여 45% 확대 발표

- 지난번 재원보충 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 증가한 8,456억원 기여
- 12월 최종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개발협회 제21차 재원보충 성공적 마무리 지원

주요20개국 정상회의(11.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세션 1(빈곤·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주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World Bank, WB) 기구

이는 약 8,456억원으로 지난 '21년 이루어진 국제개발협회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 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45%) 증가한 금액이다.

국제개발협회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금년 12월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회 지분 확대와 함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지분을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5~6일 서울(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회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국제개발협회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회 주요 공여국(국제개발협회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73년 국제개발협회 졸업 시까지 경인선 복선화 등 사업에 약 1.2억불의 차관을 지원받음

세계은행(WB)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12월 최종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 한국의 위상이 '핵심 선수(key player)'로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한국 기여 확대 보도자료 게시(<https://ida.worldbank.org/en/home>)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의순 (044-215-8710)
		담당자	사무관	안광선 (m14m14@korea.kr)



□ 국제개발협회(IDA) 개요

* 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WB이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대출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기구로, 3년마다 재원보충 → 금년 21차 재원 보충
- IDA20 재원 930억불('21년 재원보충) / 공여국 출연금 235억불

※ 한국은 IDA에 '62년 수원국으로 가입 후 '73년 수원국 졸업.
→ '77년부터 공여국으로 전환(제20차 재원보충 한국 부담률 1.5%(15위))

□ 수원국 및 공여국 현황('24.10월 기준)

- (수원국) 77개국(아프리카 40, 동아태 14, 중남미 9, 남아시아 6, 중앙아시아 4, 중동·북아프리카 3)
 - 수원국 중 42개국이 아프리카(아프리카 55개국 중 76%)
- (공여국) IDA20 기준 총 52개국이 공여국으로 참여

□ IDA 제21차 재원보충 개요

- 지난 3월부터 제21차 재원보충 논의 진행 중
 - * (3월) 1차 회의 → (4월) 2차 → (6월) 3차 → (10월) 4차 → (12월) 최종(한국)
- 12.5(목)~6(금) 서울에서 최종회의 개최(동대문 메리어트 호텔)
→ 최종회의를 계기로 공여국별 기여 금액 확정·발표 예정